

日本國 四國電力株式會社 會長 一行 大韓電氣協會 招請으로 韓國을 訪問

◇ 韓國國民의 努力에 머리가 수그려진다고 訪韓所感을 披瀝 ◇

社團法人 大韓電氣協會 招請으로 지난 10月 2日에 우리나라를 訪問한 日本國 四國電力株式會社 會長 中川以良(Mochinaga Nakagawa)氏와 社長 大內三郎(Saburo Oouchi)氏 (以上 夫人同伴) 및 社長室次長(隨行秘書) 岸見良(Teruyoshi Kishi)氏 一行은 5日 동안의 滯在期間中 大韓電氣協會, 韓國電力株式會社 本社, 唐人里火力發電所, 春川水力發電所 其他를 禮訪 또는 視察하고 朴英俊 大韓電氣協會 會長, 丁來赫 韓電社長을 爲始하여 우리나라의 電氣界 知名人士 多數와 交歡, 韓日兩國 電氣界의 相互利益 增進을 爲한 協力方案에 關하여 活潑한 意見을 交換한 後 最大限의 協力を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10月 6日 離韓하였다.

四國電力株式會社は 日本의 地域別 9個 電力會社 中の 하나로서 그 施設容量 115.5萬Kw는 우리 韓國電力株式會社의 現在 施設容量과 近似하다는 點에서도 兩 電力會社間의 技術 및 經營面에 있어서의 情報交換과 相互交流는 우리나라 電氣事業의 發展을 爲하여 現實的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期待된다.

특히 一行中の 中川氏(當 69歲)는 8.15前에 韓國에 18年間(1925~1942)이나 居住하면서 永登浦所在 朝鮮皮革會社를 經營하던 知韓人士로서 解放後에는 參議院議員(2回)으로 있으면서 國會代表로 샌프란시스코美日講和會議 參加, 經濟安定本部 政務次官, 參議院 通產委員長 等を 지내고 現在는 上記會社의 會長職 外에 四國地方開發審議會 및 四國經濟聯合會의 會長職과 日本電氣協會의 首席 副會長職을 맡고 있어 日本의 電氣界 뿐만 아니라 政界 및 經濟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重鎮級 人士이다.

日本의 9個 電力會社의 最高經營陣이 우리나라 關係機關의 公式招請으로 韓國을 訪問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日本에 代身하여 共產侵略防衛의 第一線에서 自由民主守護의 重責을 犧牲的으로

로 말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經濟建設에 依한 國家近代化事業에 總力を 기울이고 있는 韓國國民의 거룩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참으로 머리가 수그려지는 心淸입니다. 日本은 韓國의 犧牲에 對하여 좀더 眞摯한 協力を 아끼지 말아야만 될 것으로 믿는 바이며 今後는 電氣事業을 通하여 韓國에 對한 正當한 理解를 促進하고 보다 緊密한 協力を 促成하는데 힘을 바칠 생각입니다. 또한 日本電氣協會 副會長으로서 井上 會長에게 韓國의 實情을 仔細히 報告할 것이며 앞으로 韓日親善의 實을 거두도록 努力하고자 합니다』고 訪韓所感을 말하면서 (10月 5日 告別과아티 席上) 最大限의 協力を 아끼지 않을 뜻을 表明한 中川氏의 訪韓所感으로 보아 이번의 이들의 訪韓은 兩國 電氣界의 紐帶關係 強化는 勿論이고 韓日兩國의 親善關係 增進에도 크게 寄與하였다는 點에서 그 意義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우리나라 電氣界의 國際的 協力關係 增大의 좋은 契機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아래에 10月 2日 저녁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렸던 歡迎會 席上에서의 朴英俊 大韓電氣協會 會長의 歡迎辭와 中川以良 四國電力會社 會長의 答辭를 紹介한다.

歡 迎 辭

오늘 日本의 四國電力會社の 中川(Nakagawa) 會長任 內外분, 大內(Oouchi) 社長任 內外분, 岸(Kishi) 社長室次長, 이렇게 다섯분의 來賓을 맞이하여 予先 衷心으로부터 歡迎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近年에 이르러 韓日兩國의 電氣事業關係者의 往來와 交流가 相當히 活潑해지고 있음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日本의 9個電力會社の 最高經營陣의 本들이 公式招請으로 우리나라를 訪問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의 일인만큼 그 意義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多忙한 中에도 兪길을 夫人同伴으로 와주신데 對하여 同席하신 여러분과 더불어 感謝의 뜻을 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日本電氣協會와 우리 大韓電氣協會와는 이미 密接한 親善關係에 있으며 지난 6月에는 本人을 비롯하여 數名의 關係者가 札幌(Sapporo)에서 開催된 日本電氣協會總會에 參席하고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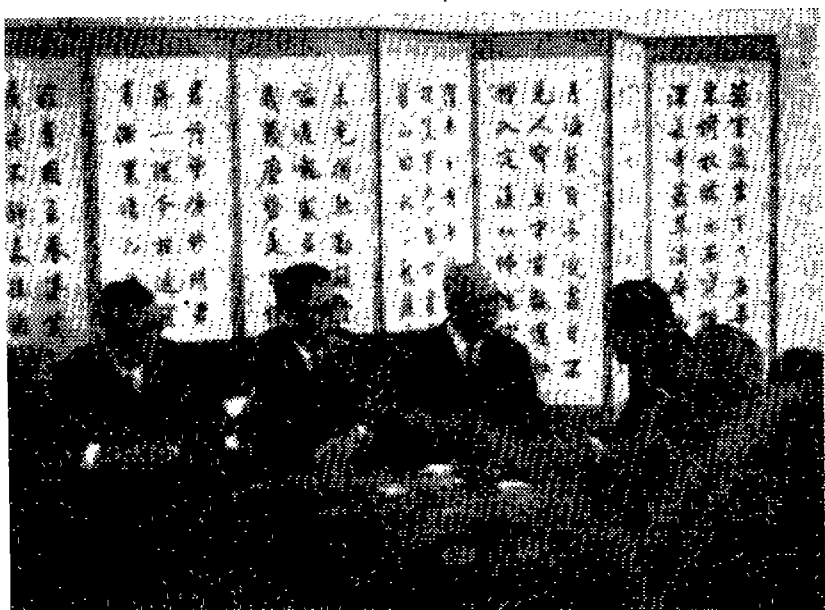
創立된지 아직도 日淺한 우리 協會로서는 半世紀에 가까운 歷史와 훌륭한 業績을 가진 日本電氣協會로부터 여러가지를 배우고 있는 實情입니다. 日本電氣協會 副會長 職을 맡고 계신 中川氏의 이번 訪問으로 兩國電氣界의 親善關係는 앞으로 더욱 強化되리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四國電力會社は 우리나라의 韓國電力會社와 비슷한 水準의 施設 容量을 保有하는 電力會社이라는 點에서도 兩電力會社間의 紐帶關係 強化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韓國旅行에 對 備하여 中川 會長任과 大

內 社長任은 岸 社長室次長의 도움을 얻어 韓國의 電氣事業은 勿論이고 政治, 經濟, 文化 全般에 걸쳐 많은 研究를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不斷한 共產侵略의 威脅 밑에서의 國土防衛와 自由守護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도 經濟開發에 依한 祖國近代化를 이룩하기 爲하여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韓國國民의 不屈의 意慾과 적지않은 隘路를 무릅쓰고 第2次 電源開發5個年計劃 完遂에 努力하고 있는 우리들 電氣事業關係者의 立場을 누구보다도 正確하게 觀察하고 理解하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번의 訪問이 日本電氣界의 우리나라에 對한 正當한 理解와 聲援의 增進과 兩國電氣界의 보다 密接한 協力關係 促進의 契機가 될 것을 衷心으로 希望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略歷紹介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中川 會長任께서는 韓日兩國의 關係가 不幸하였던 그 옛날에 18年間이나 居住하시던 이땅을 四半世紀 만에 다시 찾게 되신 것이므로 한결 感觸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滞在日程이 너무 짧아 많은 點을 案内해 드리지 못할 뿐더러 接待에 未洽한 點이



〈大韓電氣協會 禮訪: 左로부터 時計針 方向으로 岸 隨行秘書, 太 事務局長, 中川 會長, 朴 會長, 大內 社長, 尹 顧問〉

나 滯留하시는데 不便한 點이 없지 않을 것으로 念慮됩니다마는 아무쪼록 來賓 여러분의 이번 韓國訪

問이 便安하고 愉快한 旅行이 되시기를 祈願하면서 人事말씀에 代身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答 辭

本人이 中川(Nakagawa)입니다.

今般 大韓電氣協會 朴會長任의 親切하신 招請을 받아 이 絶好의 季節에 貴國을 訪問할 機會를 갖게 된 것을 無上의 榮光으로 생각하면서 衷心으로부터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本人은 1925년에 當地의 朝鮮皮革會社에 入社한 以後 1940년에 同社 取締役社長으로 就任하고 1942년에 이 자리를 떠나기까지 했수로 처서 實로 18年間이란 오랜 歲月을 貴國에서 居住하였습니다. 따라서 今般의 訪韓旅行은 本人으로서는 情은 땅을 다시 찾게 된 感懷 實로 無量한 바 있으며 또한 韓國國民 여러분의 熱誠으로 이와 같이 빛나는 繁榮을 이룩하신 今의 韓國을 直接 보고 衷心으로부터 敬意를 표함과 同時에 韓日親善을 爲하여 더욱더 努力하여야 되겠다는 決意를 새로이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戰爭直後는 參議院議員으로서 二期에 걸쳐 國會에 籍을 두었으며 1951년에는 國會代表로서 샌프란시스코講和會議에 參加하고 1956년에는 英國 上下院議長의 招請으로 國會代表로서 渡英하여 歐洲各國을 歷訪하고 歸國한 그해에 四國에서 電氣事業에 從事하게 되었습니다. 以後 四國電力株式會社의 副社長, 社長, 會長으로서 12年間に 걸쳐 四國地方에 있어서의 電力의 生産과 供給에 從事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리하여 經濟人·產業人이 된 本人은 國會議員時代에 經濟安定本部 政務次官, 參議院 大藏委員長, 參議院 通産委員長으로서 國政에 參與

한 經驗과 所信으로부터 基幹産業이며 公營事業인 電氣事業을 通하여 第二次世界大戰 以後의 平和日本으로서 不可缺의 要件인 經濟發展 特히 後進성이 짙은 四國地方의 經濟發展에 힘을 쏟을 決意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57年 以後 日本의 國民總生産은 年率 15%弱의 伸長을 繼續하여 1966년에는 1,000億弗을 超過하게 되었으며 1968년에는 美蘇에 다음가는 第3位가 될 것으로 展望되는 程度로 經濟成長을 繼續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大都市와 地方과의 사이에는 過疎의 格差가 顯著하며 四國地方도 後進地域이라는 事實을 否定하기 어려운 實情에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本人은 四國의 經濟發展과 生活向上을 爲하여 會社業務에 從事하는 同時에 四國地方開發 審議會와 四國經濟聯合會의 會長으로서 四國의 産業人이 一致團結하여 四國의 綜合開發을 有效適切하게 展開할 것을 念願하여 四國의 經濟人에게 이를 呼訴함과 아울러 그들의 意圖를 集約하여 中央



<韓國電力株式會社 禮訪: 左로부터 時計針 方向으로 中川 會長, 丁 社長, 大內 社長, 岸 隨行秘書, 太 事務局長>

및 地方의 財界와 政界에 對하여 四國의 成長과 發展을 爲한 適切한 施策의 展開를 呼訴하여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四國地域의 繁榮은 바로 四國電力株式會社의 成長과 直結된다는 것은 再言을 必要로 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本人은 四國의 地域開發 卽 産業基盤의 整備, 工場誘致의 促進, 水資源의 開發等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여 온 것입니다. <中略>

事業을 通하여 本人이 切感하는 것은 各界, 各分野의 人士들이 社會的 道義에 立脚한 다음 넓은 視野에서 大乘의 見地로부터 一致協力하여 經濟發展에 힘을 다하고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것입니다.

貴國에 있어서는 1962年 以來 第1次, 第2次의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推進되어 國民所得의 增加率도 每年 10% 程度의 伸長을 보이고 海外輸出도 輕工業製品에 있어 每年 增加一路에 있으며 交通施設의

整備等도 顯著한 것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各分野에 있어서의 貴國의 飛躍的인 發展에 對하여 本人은 衷心으로부터 敬意를 表함과 同時에 慶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今般에 貴國을 訪問하여 政治, 經濟, 文化 等 各方面에 걸쳐 오랜 傳統을 所重히 간직하면서도 近代化로의 길을 서두르고 있는 貴國의 모습을 이제부터 獨獨히 觀察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또한 電氣事業을 通하여 貴國과 四國 卽 貴國과 日本이 서로 그 長點을 交換하고 相互親善과 友好에 貢獻할 것을 여기서 提案하고 또한 念願하는 바입니다.

今般의 親切하신 招請에 對하여 거듭 깊은 感謝를 드림과 同時에 여러가지로 指導하여 주실 것을 懇曲히 附託드리면서 人事말씀에 代身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p. 20에서 繼續)

各 回路에는 一定數의 火災感知器를 適當한 方法으로 受信機에 連結하는 方式과 感知器마다 固有한 周波數의 信號를 發生시켜 受信機에 通報하는 方式의 두가지가 있다.

[4.2] 感知器

感知器를 機能面에서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① 定溫式: 室溫이 一定한 값의 異常溫度로 上昇하였을 때 動作하도록 한 것인데 이 方式은 夏冬의 季節에 따라 火災發生과 發見에 對한 時間差에 變化가 甚한 缺點이 있다.

② 差動式: 室內의 溫度上昇率이 正常的 溫度上昇率에 對하여 甚한 差가 생기었을 때 動作하도록 한 것이다. 一般的인 火災發見에는 差動式이 가장 優秀하나 불이 부슬부슬 타는 경우에는 早期發見이 困難하다.

③ 補償式: 定溫式과 差動式의 長點을 利用한 方式이다.

感知器를 熱效果의 利用方法의 面에서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① 스포트型: 一定 局所(天井等)에서의 熱效果 卽 溫度上昇에 依하여 動作하게 한 것이다.

② 分布型: 空氣管을 天井 또는 마루 밑에 配管하여 熱效果를 管內의 空氣壓上昇으로 바꾸어 管末 端의 電氣接點을 動作시키게 한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市販되고 있는 國產感知器는 다음 4種이다.

- ① 定溫式 스포트型 感知器
- ② 差動式 스포트型 感知器
- ③ 差動式 分布型 感知器
- ④ 補償式 스포트型 感知器

[4.3] 自動火災警報 發受信機

自動火災警報發受信機는 屋外用 防濕型으로 動作 確認裝置 및 蓄電池 電源이 具備된 1級과 屋內用으로 動作確認裝置 및 整流裝置가 具備된 2級 및 屋內用 3級으로 區分된다.

自動火災警報發受信機인 感知器는 外觀上 角型 및 丸型으로 區分되며 設置上 露出型 및 埋入型이 있다. 어느 것이나 火災가 發生하면 受信機에게 이것을 알리는 火災警報 및 赤色燈과 發生區域을 指示하는 表示燈이 設置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整流施設, 電話, 巡回記錄裝置, 固定消火設備 等を 具備하기도 한다.

[4.4] 漏電警報器

漏電警報器는 監視를 要하는 施設物의 電氣配線 또는 電氣機器에 漏電現象이 생겼을 때 漏電警報器內에 裝置한 變流器(CT)의 2次 捲線에 誘起되는 電壓을 增幅하여 警報를 發하여 表示燈이 點燈되도록 한 것이다. 警報는 漏電個所가 完全修理될 때까지 繼續된다.